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12월 제262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천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26회 동문들 코로나 위기 딛고 졸업30주년행사 전통 이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 등 똘똘 뭉쳐 12월 11일 동문 선후배 격려 속 개최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 강웅규)가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2층 라임홀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모교 이종업 교장 등 내빈과 강신열 총동문회장과 동문 선후배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 속에 개최되어 모교 동문회 역사를 이어나갔다.

식전행사로 걸그룹 힌트의 축하공연과 초청인사 및 동문 소개가 있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공식행사가 시작되고, 졸업30주년기념기가 입장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26회 동기들의 추억과 우정을 그린 영상물이 상영됐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세월에 쫓기듯 가정과 사회생활에 전념하다보니 은사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리운 선후배님도 찾아뵙지 못한 채 무정한 세월만 흘러 어느덧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렀다"며 "중년이 되어 뒤돌아보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버텨내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추진위원장은 또 "모교 졸업30주년 행사를 통해 은사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만큼, 충기인으로서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30년의 세월을 보냈던 지난 날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 되새기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모교 이종업 교장, 강신열 총동문회장, 이종호 대전시의원(13회), 김종천 대전시의원(22회), 강노산 대전서구의원(24회), 윤대진 고문(5회)이 축사를 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은 26회 동기들의 마음을 모아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5백만원, 모교에 환경개선기금 5백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26회 동문들은 어려운 가운데 참석하신 김현식, 조오형, 강학순 은사님께 선물을 증정하고 절을 올렸다. 참석하지 못 하신 은사님들은 추후에 제자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은 전통을 내년에도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30주년졸업기념기를 27회 동문에게 전달하는 한편, 강신열 총동문회장에게 공로패를, 김종천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6회 졸업 30주년을 축하하는 케익 절단과 건배사가 있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진도 재무국장은 "26회 졸업30주년행사에 현금 2,945만원, 물품 235만원 상당과 화환 24개를 후원받았다"며 "행사를 치르도록 도와주신 동문 선후배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6회졸업30주년기념행사가 12월 11일 오페라웨딩홀에서 내빈과 선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은사님을 모시고 졸업30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을 자르고 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이 졸업30주년기념기를 힘차게 휘두르고 있다.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강웅규 ▲수석부회장 문영희 ▲부회장 설용선 정익재 ▲사무국장 김흥순 ▲재무국장 이진도 ▲조직국장 권경중 ▲홍보국장 이진서 ▲편집국장 박희복

<단체 및 선후배 동문 후원>
▲총동문회 100만원 ▲22회동문회 50만원 ▲23회동문회 30만원 ▲24회동문회 50만원 ▲25회동문회 100만원 ▲30회동문회 10만원 ▲김학경(13) 30만원 ▲이언구(16) 300만원 ▲이종현(16) 50만원 ▲정창희(18) 50만원 ▲장영옥(18) 20만원 ▲이강식(19) 20만원 ▲최동준(21) 100만원 ▲진춘식(21) 30만원 ▲임동현(21) 30만원 ▲김종천(22) 100만원 ▲정기채(22) 100만원 ▲김용태(24) 30만원 ▲정상복(24) 30만원 ▲김인문(25) 100만원 ▲박명규(27) 30만원 ▲백기현(27) 30만원 ▲이정근(30) 50만원 ▲권오진(31) 30만원 ▲김태용(32) 100만원▲전우창(33) 30만원 ▲윤대진(5) 10만원 ▲신세균(22) 10만원 ▲임광연(23) 20만원 ▲이승현(24) 30만원 ▲홍준용(25) 10만원 ▲이정근(30) 10만원 ▲이진혁(30) 10만원 ▲이민훈(35) 5만원 ▲김정규(35) 10만원

<26회 동문회 개인 후원>
▲강웅규 300만원 ▲문영희 100만원 ▲설용선 100만원 ▲김흥순 100만원 ▲이진도 100만원▲권경중 100만원 ▲이진서 100만원 ▲정익재 100만원 ▲박희복 50만원 ▲이민용 50만원 ▲황용주 30만원 ▲김종국 20만원 ▲류한의 20만원 ▲이영로 30만원 ▲복권세 30만원

<물품 후원>
▲에스엠코리아 간장약(이수만) 100만원 상당 ▲한라메디 마스크(한민구,32회) 70만원 상당
▲에이스광고 현수막 등(박희복.26회) 50만원 상당 ▲교촌에프엔비 상품권(김은순) 15만원 상당

– 신도성 편집위원 –

“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이명희 동문(방직과 6회) “모교는 청소년기 추억 서린 곳” 발전기금 3백만원 보내와

추억의 졸업앨범에 이명희 동문이 손영호 담임선생님 옆에 앉아 있다.

샛별회 2015년 부여 궁남지에서의 야유회 모습(좌로부터 김이중 7회, 오세우 8회, 우옥순 4회 권희수 8회, 이명희 6회 동문).

“11월호 동문회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명희 동문(방직과 6회. 초등학교 교장 정년)이 7일 오후 총동문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2015년 대전 배울초등학교에서 정년한 후 세종시로 이사 갔다는 이 동문은 “그동안 동문회보를 통하여 모교와 동문들의 소식을 보면서 향수를 달랬는데,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지 싶어’ 발전기금을 조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또한 “그동안 동문들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주어 고맙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너무 미안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로 안부인사와 함께 “선배님, 조금만 보내주세요”라고 통화를 마친 후, 이틀이 지난 9일 오후 동문회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은행에서 발전기금 입금을 확인해보니 ‘이명희 동문 300만원’이라고 찍혔다는 것이다. 순간 “30만원이 아니고?”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다음날 동문회사무실에서 동문회보 합본호를 열람하고 6회 졸업 앨범을 찾아 이명희 동문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했다. 모교 여학생 동문은 4회부터 10회까지 모두 72명인데, 그중 샛별회라는 모임이 동문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이명희 동문은 항상 웃으면서 선후배 동문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명희 동문은 모교 방직과에 입학한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손영호 3학년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청주교육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이 동문은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 41년 6개월을 헌신하다가 2015년 2월 정년했다.

이명희 동문의 소식이 전해지자, 요즘 총동문회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단비를 만난 듯, 동문들이 매우 고무되어 기뻐하고 있다. 이우정 총동문회 고문(기룡전기 회장)은 15일 오후 이명희 동문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감사하다,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인사하자, 이 동문은 쑥스러운 듯 “우리가 그래도 충남기계공고 출신이잖아요”라고 대답했다. 백 마디 말보다 조용하게 실천하는 동문이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동문회보가 여전히 발행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용기를 준다. 충남기계공고 총동문회 만세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활약한 모교 방직과 여학생 동문”

박정희 대통령 시절 4회부터 10회까지 72명 졸업 각계에서 활약

우리 모교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붐이 일어나고 방직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방직과에 여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했다. 4회부터 10회까지 모교를 졸업한 방직과 여학생 동문은 모두 72명에 달한다.

4회 때 처음으로 남학생들의 관심 속에 5명의 여학생이 입학했다. 여학생들은 졸업 후 충남방직이나 풍한산업 등 방직회사에 취업하기도 했지만, 그중 이행수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 대전대 영문학과 교수로 정년을 했다.

5회 9명의 여학생이 입학하고 6회에는 이명희 동문 등 2명만 입학했다. 7회 4명이 입학하여 여학생 수가 늘지 않다가, 8회부터 주간은 물론 야간반을 운영하여 21명의 학생이 대거 입학했다. 집안 형편으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9회 때 19명이던 여학생은 10회 때 12명의 여학생을 끝으로, 방직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방직과도 12회 때 모교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방직과 동문들의 단결력은 지금도 끈끈하다. 방직과동문회와 방직과 여학생 모임인 샛별회는 친자매처럼 우의가 좋다. 샛별회(회장 박병인 4회, 총무 권희수 8회)는 이행수(4회) 우옥순(4회) 이명희(6회) 김이중(김민주로 개명. 7회) 오세우(8회) 동문 등이 회원으로 매년 야유회를 가고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고 있다. 샛별회는 총동문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왔다. 드센 공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3년간 같이 공부한 것은 삶에서 큰 공부였다고 회상하는 김이중 동문은 2014년 11월까지 총동문회 총무로 8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총동문회 각종 자료 정비와 동문 화합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모교 동문 여학생모임 샛별회 30회 정기총회 빛냈다”

총동문회 8년 6개월 근무 김이중 동문(7회) 감사패 축하차 임원진 출동

제 30회 총동문 정기

박병인 샛별회 회장은 “나이가 든 지금 생각해봐도 공고를 모교를 둔 것은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교에 다닐 때는 적성에도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었고,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나를 키운 용광로였다”고 회고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열정의 26회 우정 30년, 미래 30년 충기 만세!”

졸업30주년 기념행사 등록

"친구야 반갑다"

26회 졸업30주년기념기 입장

강웅규 추진위원장 개회사

동기들 추억의 영상물 상영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전달

모교에 환경개선 기금 전달

은사님께 선물 전달

“이문휘 동문 세계 최대 아마골프 우승, 코리아 위상 휘날려”

BMW골프컵2021 “동문 성원에 감사, 내년에 전국골프 우승으로 보답할터”

이문휘 동문이 스코어보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적하며 환호하고 있다.

이문휘 동문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수상한 후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시상식 단상에서 부인 정민경 여사와 기쁨을 공유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모교 동문골프팀(단장 전종현) 이문휘 선수(27회)가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마추어 골프 대회인 ‘BMW 골프컵 인터내셔널 2021’에서 한국대표로 출전하여 극적으로 우승해 12월 9일 현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영광의 우승컵을 수상했다.

BMW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골프 대회로 코로나로 인해 예년보다 적은 전세계 33개국 선수들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만 21세 이상의 아마추어 BMW 고객에 한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BMW 골프컵 인터내셔널’은 지난 1982년 골프 종주국인 영국에서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회를 거듭할수록 프로대회에 버금가는 수준과 기량, 그리고 BMW 고객들의 교류와 친선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문휘 동문은 부인과 동행 12월 3일 출국하여 11일 오후 무사히 귀국한 후 10일 간의 격리를 거치고 직장에 출근했다.

전종현 모교골프팀 단장은 이문휘 선수가 출국 시 전화로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금을 보내 사기를 진작했다. 이문휘 동문은 “이 모든 게 전종현 단장님께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매사 지원을 해주셔서 이룰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주마가편하여 꼭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에서 25회 허영준 선배, 31회 김경훈 후배와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기필코 우승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또한 충기밴드에 수십명의 동문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하며 감사인사를 보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내년에는 코로나 극복하여 더 많은 친구들 동참 기대”

16회동문회장배 골프모임(식스틴골프) 행운의 우승 권기현 친구 영광

16회 동문들이 경기를 마친 후 동문회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한선, 양희대 신구회장이 악수하고있다.

권기현 동문에게 우승상이 수여됐다.

16회 동문들의 골프모임인 식스틴골프모임(회장 오한선)은 11월 27일(토) 경북 상주에 있는 뉴스프링빌에서 16회동문회장배 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경기엔 20명이 참가했는데, 오랜만에 경기를 축복이라도 하듯이 파란하늘과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은 서로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간 코로나로 인해 참석치 못한 아쉬움을 골프로 풀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여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멋진 티샷으로 시작한 경기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며 친구간의 우정을 만끽하였다. 오한선 회장은 모든 친구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라는 말과 함께 멀리서 참석한 박노환 친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행운의 우승엔 권기현 친구가 차지했고, 개근상엔 최선묵 친구가 수상했다. 또한 최저타상엔 하창규, 행운상엔 신영태. 김석래. 조성서가 수상했다. 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로 회장에 양희대, 부회장에 윤석길 친구가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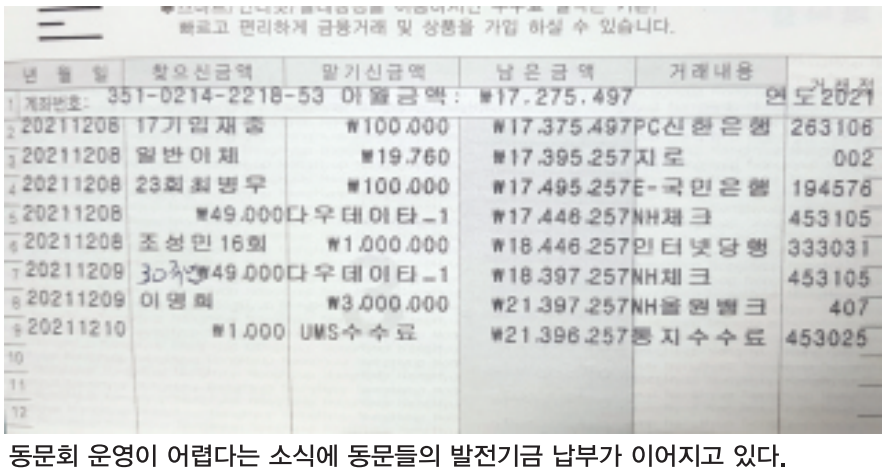
양희대 회장은 “내년에는 코로나를 극복하여 16회 동문골프 모임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식스틴골프모임은 총동문회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뜻을 모아 50만원의 발전기금을 동문회에 보내왔다. 또한 16회 동문회(회장 윤석길)도 50만원을 동문회에 보내왔다.

– 김희곤 편집위원(16회) –

“동문회보가 걱정 돼서 바로 달려 왔어요” 연회비 2만원 현금 납부

황인정(방직과 2회) 동문 창간호부터 애독자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

황인정 동문이 발전기금 납부 후 황급히 총동문회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년 월 일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
계좌번호: 351-0214-2218-53 이율금액 : ₩17,275,497					연도2021
20211208	17기입재중	₩100,000	₩17,375,497	PC신한은행	263106
20211208	일반이체	₩19,760	₩17,395,257	지로	002
20211208	23회최병우	₩100,000	₩17,495,257	E-국민은행	194576
20211208	₩49,000	다우데이타_1	₩17,446,257	NH체크	453105
20211208	조성민16회	₩1,000,000	₩18,446,257	인터넷당행	333031
20211209	30기생 ₩49,000	다우데이타_1	₩18,397,257	NH체크	453105
20211209	이명희	₩3,000,000	₩21,397,257	NH올원뱅크	407
20211210	₩1,000	UMS수수료	₩21,396,257	통지수수료	453025

동문회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에 동문들의 발전기금 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동문들 발전기금 납부, 광고 신청 잇따라

황인정 동문(방직과 2회)이 동문회보 11월호(제261회) 기사(동문회보 휴간 논의 이사회 등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연회비 2만원을 들고 12월 3일 점심 무렵 총동문회 사무실을 찾아왔다.

황 동문은 “총동문회가 돈이 없어서 동문회보를 만들지 못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사진 찍자는 소리에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다. 황인정 동문은 창간호부터 애독자로 동문회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컴퓨터에 입력된 최근 8년치 자료를 보면 황인정 동문은 2012년 2만원, 2013년 4만원, 2014년 4만원, 2015년 2만원, 2016년 4만원, 2017년 2만원, 2018년 2만원, 2019년 2만원, 2020년 4만원에 이어 올해도 빠짐없이 2만원을 납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황 선배는 기자가 “요새는 뭐 하시느냐”고 묻자, “거한실업 회장”이라고 대답했다. 의아하여 다시 묻자, “거실을 왔다갔다하는 거한실업 회장”이라며 우스갯소리를 날리고 총총히 사라졌다. 또한 유중조(전기과 7회) 동문은 “동문회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동문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걱정을 하며 “그동안 동문회보는 모교를 졸업한 자긍심과 함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뭉쳐서 십시일반 정신으로 동문회보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중조 동문은 5만원의 발전기금을 보내왔다.

총동문회 운영이 어려워 동문회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보내오고 있고 광고문의도 늘고 있다.

<관련소식 2면, 7면>

– 신도성 편집위원 –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제공,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터”

서경원 동문 20년 숙원사업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 개원 “관심과 협조” 요망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 개원식이 12월 4일 열렸다.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은 충남대병원과 협약식을 맺었다.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양순) 개원식이 12월 4일 대전 중구 석교동 29-5번지 현지에서 열렸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은 모교 동문인 서경원 우송정보대학 교수(15회)가 공직생활을 마친 부인과 함께 평생 숙원 사업이다.

석교동이 고향인 서경원 동문은 모친 김양순 여사를 모시고 2남 1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충남대병원에서 최고 행정직인 사무국장을 작년에 정년하고 우송정보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큰아들이 장애인으로 항상 마음에 걸렸던 서동문은 20년 전부터 장남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법인의 설립을 준비해왔다.

2020년 8월에 현 부지 101평을 매입하여 7개월에 거쳐 연건평 150평 4층 건물을 지어 이날 개원식을 갖게 됐다.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 9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서 동문의 모친 김양순 여사를 선출했다. 올해 2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10월 1일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선정됐다.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은 산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이용정원 35명으로 지난 11월 9일 대전 중구청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돌다리청림가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 개원식과 더불어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보건관리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서경원 동문은 “積善之家必有餘慶(적선지가필유여경:적선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 복이 자신 뿐만 아니라 자손에까지도 미친다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자연에서 풍경사진 찍다 보면 저절로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오원석 사진작가(전기과 21회) 대전과 남양주 등에서 사진전시회

“업무에 시달리다가 쉬는 날, 잠시 카메라를 들고 자연에서 풍경사진을 찍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원석 동문(전기과 21회. 세종시 대통령직속국가물관리위원회 차장)은 취미로 시작한 사진찍기가 어느새 사진작가로 인정받아 전시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오 동문은 올해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 제21회 풍경사진동우회 회원전에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문화원연합회의 “2021년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보조를 받아 풍성한 작품을 출품했다.

오 동문은 1989년 한국전력공사 영월화력발전소 첫 발령지에서 지역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다. 객지 타향에서 카메라는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가 되어 오 동문은 그 후 영월영상회, 서산한우리사진동우회, 한전보령화력사진동우회, 무주사진동우회에서 총무를 맡아 부지런히 활동했다. 그의 노력은 1998년 한국사진작가협

취미로 시작 작가가 된 오원석 동문

회 회원으로 가입 후 현재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촬영지도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15년 한국수력원자력(주) 팔당수력발전소에 근무할 때 지역주민들을 위해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6년 동안 재능기부 사진교실 강의를 통한 봉사활동을 했다.

남양주에 근무하다가 2021년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통합물관리협의체 실무협력팀 한수원 대표로 파견 오면서 그간 촬영한 원고를

올해 5월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원석 초대전이 열렸다.

무료 기증하고 왔더니,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오원석초대전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8곳을 순회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볼꺼리를 제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했다.

오원석 동문은 “요즘은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 항상 주변 자연에서 좋은 환경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앞으로 동문들이나 지역에서 원하면 사진취미 활동을 위해 전국대회 촬영지도, 심사, 재능기부 강의 등을 기꺼이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11월 25일 ~ 2021년 12월 20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김진무	50,000	자	8	오정섭	5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18	이보구	20,000
광	1	윤석원	20,000	화	8	이종웅	20,000	기	14	김근식	50,000	기	20	김동로	50,000
방	2	도기정	100,000	전	8	조성돈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0	박경하	100,000
자	2	유병환	20,000	기	8	최종수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금	20	이두희	20,000
광	2	정영길	20,000	자	9	김선영	20,000	전	15	이동규	20,000	전	20	이원우	50,000
방	2	황인정	20,000	전	10	고병만	50,000	기	15	이정원	100,000	기	20	진승현	20,000
전	3	배정식	20,000	자	10	유승복	200,000	기	15	이중재	20,000	기	21	김기영	20,000
광	3	서한수	20,000	광	10	윤여갑	200,000	기	16	김문환	20,000	기	21	진춘식	200,000
전	3	손영주	30,000	자	10	이경세	50,000	기	16	김종열	100,000	기	22	안한식	20,000
전	3	이우정	20,000	화	11	김연승	10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2	이영우	50,000
전	3	이종욱	500,000	광	11	이종연	50,000	기	16	이계천	20,000	전	23	강윤환	50,000
전	6	윤여봉	100,000	광	11	조동호	100,000	전	16	이상옥	20,000	전	23	김재천	20,000
방	6	이명희	3,000,000	방	11	표광열	52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23	최병무	100,000
방	7	안중실	100,000	전	12	권오범	20,000	기	16	이진구	20,000	전	23	황연범	200,000
전	7	유중조	50,000	기	12	조현호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24	최성민	20,000
방	7	이병옥	20,000	전	12	한영식	100,000	기	16	조성민	1,000,000	기	26	조유연	100,000
자	7	이재진	20,000	화	13	권기대	50,000	기	17	김원근	20,000	기	30	이정근	100,000
전	8	박희종	50,000	기	13	김창수	200,000	기	17	서재원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8	안상규	20,000	기	13	변상칠	50,000	금	17	신기철	50,000				
방	8	양종수	20,000	기	14	길준석	50,000	기	17	임재중	100,000				

단체

단체 16회골프모임	500,000
16회동문회	500,000
공사모동문회	50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저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게 하는 글〉 대낮에 등불 들고 다니며 사람을 찾은 디오게네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BC 320경)는 종종 대낮에 등불을 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 나타나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한다. 한 번은 환한 대낮에 번잡한 거리에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니자 그의 제자가 아니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라고 하니까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디오게네스는 정신질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시위행위요, 그의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디오게네스 생존 당시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으로 세계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행세하던 시절 그는 행복한 삶의 조건을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찾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려 했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그는 소유 지향적 존재들이 행세하던 사회에서 존재 지향적 삶을 실천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당시의 시대 풍조와 가치관과 제도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는 길가의 나무통 속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모두 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자, 디오게네스는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주시오"라고 대답했다.

그가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왕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세속적 특혜가 아니라 그런 것조차 거들떠보지도 않는 빈 마음과 자족감이었다.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현대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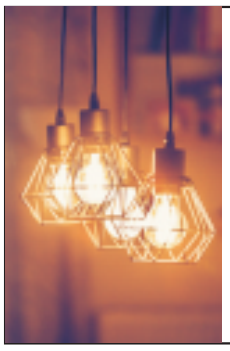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마 수 용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 (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시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충남기계공고 20회 동문들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20회 동문친구들 힘을 냅시다. 아자! 아자! 파이팅!~

20회 정밀기계과 김동로 010-2526-8033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